

일주문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동행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9월 17-19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혜정 스님, 前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등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추기 스승강공 동행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10월 19-20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진기 58년도 추기스승강공'을 봉행한다. (02)913-0751



'학진' 등재 후보 학술지 선정
인도철학회장 김선근 동국대 교수는 9월 9일 인도철학회 학술지 <인도철학>이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도 '등재 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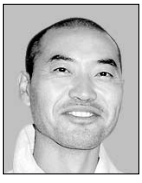
8재계 실천법회 동행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총 단장은 10월 9-10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정기연수회 및 8재계 실천법회를 봉행한다. (02)737-7588



청소년 초청 환경등반대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김진관 총재는 10월 10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에서 제1회 청소년 초청 환경등반대회를 개최한다. (02)735-1108

항가 25수 동영상·애니메이션 제작

예천 장안사 주지 지정 스님



지정 스님



항가집 CD

예천 장안사 주지 지정 스님이 지난해 항가 25수를 소개하는 항가집을 낸데 이어 최근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결집한 CD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정 스님이 제작한 항가집은 현존하는 항가 25수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그 원류나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보현행원(보현심대행원가) 11수는 균여 스님이 지은 것으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모태로 지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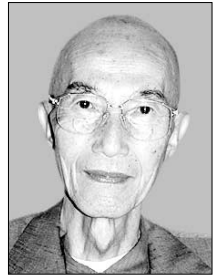
스님은 "그동안 우리문화의 원류인 항가의 보급이 미진하고, 일부 학자가 우리말로 풀어썼다할지라도 근원적인 화엄사상도 모르는 채 말 풀이에 그친 것이 안타까워 항가집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정스님은 1년간 항가집 3만여권을 경북 예천 문경지역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강원이나 지방 선방에 무료로 배포해왔다. (054)655-1401 배지진 기자 jsun@buddhapia.com

“日 과오 인한 원혼 달라고 평화 기원”

한·일 합동 임진왜란 희생자 위령제 봉행한

전국 일공순례회 대표 이리에 고우이치로우 씨



김은경 기자 lipck@buddhapia.com

“원혼은 원한을 없애 버렸을 때야 비로소 풀어진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400여년전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작업을 시작으로 한·일 양국의 평화, 우호증진을 이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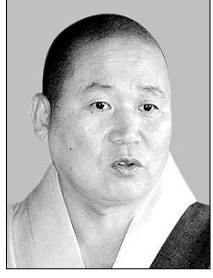
9월 17일 봉선사와 함께 '한·일합동 임진왜란 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한 일본 교사교육단체인 '전국 일공 순례회 세화인' 대표 이리에 고우이치로우(入江孝一 81·사진) 씨. 이리에 씨는 이번 위령제가 피로 물든 세계에 불교의 평화와 자비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리에 씨는 “전쟁이란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앞서 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일”이라며 “모든 일이 인과법에 따라 일어나는 만큼 한·일 양국의 활발한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역사상 양국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일본은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반성의 시간을, 한국은 가슴 깊이 묻어놓은 원한을 풀고 양국 관계를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

합심으로 불사 7건 회향 ‘도량 업그레이드’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도선사는 지난 1년 동안 설 새 없이 불사를 추진해 불자들이 보다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호국참회 관음기도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선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준 신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3년 동안 도량정비 불사에 매진해 온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사진)은 지난해 9월 대웅전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새해체를 시작으로 반야굴 조성, 참회원 정비, 포대화상 봉안, 수각 조성, 마당 복개, 운장대 봉안 등 일곱 가지 불사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혜자 스님은 “성·현수·십일

면·불공견삭·마두·여의륜·준제 7관세음보살 33일기도에서 불사의 영감을 얻었다”며 “이 불사의 공덕을 불자들에게 회향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33일 동안 14인의 고승을 초청해 법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도선사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독송기도를 열어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

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혜자 스님은 기록에 치우치는 신앙을 경계, 주지 부인 직주 불교교양대학원 도선불교실답학원을 개설해 불자들의 교육을 병행해 왔다. 10선업상, 육바리밀삼 등 신행상을 제정해 신도들의 신행·봉사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혜자 스님은 앞으로 도선사를 시민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사찰의 포교활동이 이제는 일주문 밖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구를 새긴 경판을 제작해 도선사를 오르는 청담로와 도량에 설치하고, 산사음악회 등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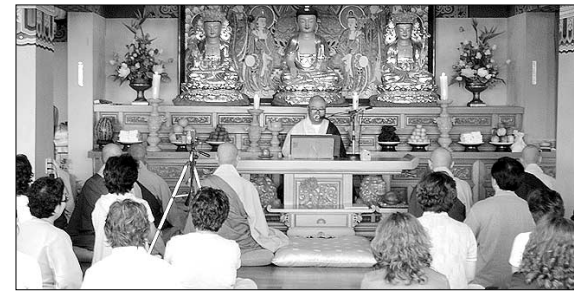
박용명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법장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9월 13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예방을 받고 국기보안법 등 최근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장 스님은 이날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보법 폐지와 친일인사규명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부산 미타선원, 휘광 스님 초청법회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풍운)은 9월 14일 해외 포교와 인재양성에 진력하고 있는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육외에 건립된 대규모 사면사천왕상, 대웅전 건립 등 중장 불사 회향 기념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2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칠곡 송림사 신도회 출범식



칠곡 송림사는 9월 14일 신도회 출범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송림사 신도회는 유성중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진흥회장을 고문으로, 이상번 전 대한불교청년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고, 자비회와 지장회, 관음회, 경전읽기모임, 합창단 등 다양한 신도모임을 구성했다.

인사

동국대

동국대 서울캠퍼스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 윤범대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 이강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천중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기획팀장 김영진 △총무처 총무팀장 김성근 △정보관리실 정보자원관리팀장 김재선 △대학원 교학부 교학과장 박승중

위덕대

△교무처장 홍옥현 △학술처장 이평기 △학술정보처장 천인우 △기획팀장 김구용 △대의협력팀장 이광동 △교무팀장 김종포 △학생취업팀장 최종규 △총무팀장 이덕기 △시설팀장 최희호 △전산정보팀장 전우찬

새 ‘동지’ 짓기 첫 삽... “관심을...”

‘동지청소년의 집’ 불사 추진 자월 스님



“이제 ‘동지’ 만들기에 첫 삽을 떼습니다. 앞으로 애들을 제대로 된 시설에서 보살피려 합니다.”

행된 ‘동지 청소년의 집’ 기공식 법회 현장. 무의탁 청소년들의 ‘아버지’ 자월 스님(자현사 주지·사진)이 모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2002년 조건부 복지시설로 전환되고를 한 후, 고민 끝에 신축을 결정한 자월 스님. 뼈대할 절 살림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다짐으로 이렇게 말했다. 스님은 5년 전 주지로 부임하면서

이곳 아이들 20명과 인연을 맺었다. 젓먹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스님이 아이들을 맞이할 때는 사연도 구구절절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한 쌍둥이 형제는 자폐·간질발작증세를 보여 4-5군데의 보호시설에서 거절당 한 뒤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아픔을 아리게 하나입니다. 쌍둥이가 아주 건강해졌어요.”

살림을 챙기는 스님은 요즘 따라 아이들이 상처받은 기억을 잊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스님은 늘 아이들을 많이 안아준다. 갈 곳을 잃은 아이에게 늘 두 팔을 내밀어 온 자월 스님. 턱없이 모자란 공사비 때문에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으며 활짝 웃었다. (032)883-9033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조동선학논총(曹洞禪學論叢) 출판기념법회에 초청합니다
긴 장마철과 유난히 무더운 하절의 무탈 무사하심과 하안거(夏安居)해제를 경하 드립니다.
적은 것으로써 큰 것을 이룬다는 이소성대(以小成大)의 순리를 따라 저희 종단은 구산선문(九山禪門) 수미산의 개조(開祖) 이엄진철(利嚴眞澈)선사의 조정(朝廷)인 중국 운거산 진여사에서 단절되었던 선맥복원(禪脈復元)과 사법전승(嗣法傳燈)의 절차를 마친지 제3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문화관광부의 소관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의 법인정립을 이룩하였습니다.
저희 종단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불교학자들이 참여하여 기획 간행하는 조동선학논총(曹洞禪學論叢) 제1집이 출판되어 다음과 같이 자축 소연을 마련합니다.
● 시간 : 불기2548년 10월 9일 (양)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불교방송국 대법당 문익전화 02)705-5560 ~ 1
1. 구산선문 수미산 開祖 利嚴眞澈禪師의 祖庭 중국 雲居山 眞如寺에서 嗣法傳燈 禪脈복원 제 3주년
2. 한국 조동종 총본산 創宗 제 2주년
3. '사단법인 韓國佛敎曹洞禪林' 법인 창립
4. 『曹洞禪學論叢』제1집 출판간행, 10월 9일 출판기념회
5. 曹洞禪林 全國結社 순회집회, 11월 부산부터 실시
한국조동종총본산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대표 : 總務院長 今禪鶴峰 合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원효사 02)704-8065, 713-0475 FAX 704-8064
불교방송국: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마포 지하철 역 하차)

승복 범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만족할 가격
1. 경남 제일 모직(물세탁)
적상,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80,000 ~ 210,000 두루막 150,000 ~ 18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상,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상,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상,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상,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금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